

보도시점 2026. 2. 6.(금) 16:30

배포 2026. 2. 6.(금)

극한 가뭄·녹조 대비... 전국 취·양수장 개선 속도 낸다

- 기후부 제1차관, 취·양수장 개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재
- 사업구조 개편, 점검반·협의체 구성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극한 가뭄과 녹조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분야 소속·산하 기관이 참석한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녹조 등 재난 상황 발생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양수장의 취수구 수위를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등 시설 성능을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취·양수장 70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66곳은 개선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2026년)에는 사업비로 470억 원을 편성했으며 녹조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에 시설개선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대 상	70	7	52	1	10
완 료	4	0	3	1	0
진행 중	66	7	49	0	10

이날 회의에서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사업비 지급 체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지방정부 소유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여,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 측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보완한다.

셋째,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취·양수장 개선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관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독려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양 부처 소관 시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요인을 공동으로 해소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가뭄과 녹조 등에 대비하고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체계를 정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취·양수장 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진 (044-201-7618)



시 간		세 부 내 용	비고
16:30~16:35	5'	• 인사 말씀	제1차관
16:35~16:50	15'	• 취·양수장 개선 현황 및 신속 추진 방안	기후부 물관리총괄과장
16:50~17:15	25'	• 소관 시설 개선 세부 현황 • 상시점검반 구성 및 운영(안) (대구청→낙동강청→영산강청→한강청)	유역·지방환경청장
17:15~17:55	4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7:55~18:00	5'	• 마무리 말씀	제1차관